

“외국인 근로자 고용 쉽고 빨라야”

지역 중기, 선발권·의무 근무기간 제도화 요구도

광주상의 고용포럼 실태조사

외국인들 “인권 개선·체류 연장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은 불법 취업자이고 아직도 찾아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무근무기간 제도화와 고용 수속의 간소화, 선발권 부여 등을 바라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권보호와 체류기간 연장,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1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4차 광주고용포럼’에서 이상수 호남대 교수와 이승룡 하남산단관리공단 총무부장은 광주 하남산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4명 이상인 83개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업체 81%가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반영했다. 내국인에 비해 이직율이 낮고(78.6%), 임업이 쉬워(71.5%)고 응답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고용 수속의 간소화와 신속화(58.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용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 부여(17.9%), 한국어

강습 및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11.9%)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당수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75.0%)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습관의 차이(60.9%), 애사심 부족(55.9%), 인력관리의 어려움(45.2%) 등을 호소했다.

업체들은 또 숙식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비용이 국내 근로자와 비슷(64.3%)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21.5%)고 응답했다. 내국인보다 고용 비용이 낮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조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점 척도 기준으로 급여수준(4.00)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인 근로자와의 관계(3.89), 작업내용(3.87), 근로시

간(3.81), 감독자와의 관계(3.76), 작업환경(3.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중 16.9%는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국의 동료나 한국인 또는 모국의 종개인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도 찾았다. 한차례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37.1%였고, 2차례 20.2%, 3차례 18.0%, 4차례 이상 8.9%나 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권보호 강화(89.9%)와 체류기간 연장(89.9%), 작업환경의 개선(88.8%), 송출비용 완화(83.1%), 한국사회 동화 프로그램 마련(80.9%),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80.9%) 등을 정부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전국 최저

광주 831만원·전남 701만원…영세업체·농축산 근무 많아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급여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외국인 근로자 소득·연말정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6017명으로 이들의 급여총액은 500억원, 1인당 급여액은 831만원이었다. 전남은 총 5693명으로 총급여는 399억원, 1인당 급

여액은 701만원이었다.

전남 1인당 급여액은 전국 16개

도시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광주, 제주(852만원), 전북(873만원), 충북(881만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1317만원이었다.

광주와 전남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작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007년 917만원에서 831만원, 전남은 834만원에

서 701만원으로 평균 100만원 가량 감소했다.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하남·평동·산단 등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제조업체에 비해 매출 규모가 떨어지는 농·축산 현장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의 1인당 급여가 337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1433만원), 부산(1233만원), 강원(1079만원), 울산(993만원) 등 제조업체가 많은 곳의 임금이 높았다.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모두 11만6411명이었으며, 서울(5만309명), 경남(3만4606명), 인천(3만3235명) 순이었다.

한편, 2008년 전국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34만4583명으로 2007년 보다 6만2519명(22.2%) 증가했으며, 이들의 총급여액은 4조5383억원에 달했다. 1인당 부당 세액은 76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외국인 근로

광기술원 산업용 레이저 연구 ‘탄력’

원천기술개발 주관기관 선정…5년간 290억 투입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한국광기술원(원장 유은영)은 17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융합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기술원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

원·광주자동화설비공고(마이스터고)를 비롯해 화전기공·코센·글로벌광통신·라이텍코리아·오이솔루션 등 16개 산업용 레이저 관련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최근 성장성이

높은 고체 레이저(DPSSL)를 비롯해 광섬유 레이저·고출력 레이저 디아이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시험·분석·평가, 인력 양성, 종합정보채널 구축 등 국가 레이저산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광기술원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제조 원가를 1% 낮출 경우 연간 약 1조6000억원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노동부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2010년 6월 17일(목) 11:30

광주지방노동청



사회적 기업 지원 약속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정순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노동위원회 등 호남지역 8개 노동부 유관기관은 17일 오전 광주고용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물품 구매와 위탁 용역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노동청 제공)

기업 절반 “타임오프 노사협상 난항”

76%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기아자동차 노조가 타임오프(근로

시간제) 제도 시행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 산의 순회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211개사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기업이 75.7%에 이르렀고,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또 대다수 기업(73.3%)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근로시간제재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만족(73.7%)하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65.5%)보다는 대기업(84.3%)에서 흡족해했다.

이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보인다.

그러나 응답업체 중 절반 이상인 53.0%가 타임오프 도입과정에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상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응답 기업의 56.9%는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해 요구한 경우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봄에 결정’(42.6%), ‘노조 요구를 주겠다’(0.5%)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또 상한을 초과해 타임오프를 부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도 19.6%에 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급에 대한 ‘워치리스트’(Watch list : 하향 검토) 등록을 해제하고 ‘안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금호그룹株 일제 상승

화학·운송 실적 개선…금호타이어 상한가

그룹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던

금호그룹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17일 금호타이어는 상한기에 올랐고, 금호산업은 13.56%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6.79%, 대한항운은 0.65% 올랐다.

금호석유는 한달새 60% 가까이 오른 부담에 결국 0.37%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5만57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이치우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일 금호석유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운, 금호

기대로 최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이날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진행 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까지 강세에 합류했다.

이 같은 주가 강세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실상 그룹 내 계열 분리가 이뤄진데다 화학, 운송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일 금호석유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운, 금호피언비화학, 한국복합물류의 신용등

코스피지수	1,707.92 (+2.59)
코스닥지수	495.18 (-0.78)
금리(국고채 3년)	3.70% (-0.02)
원·달러 환율	1,213.50원 (+2.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헌정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 추천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010-8033-0114 광장/로지 ☎ 010-5878-000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010-684-3886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010-271-2375

부동산 경매